KBL, 올해부터 FA 원 소속 구단 우선협상제도 폐지

큰 손 KCC 'FA 대어' 낚을까

FA 자격 이대성 잡지 않을 가능성
고액연봉 선수 적어 샐러리캡 여유
취약한 빅맨·포인트가드 투자 예상

전주 KCC는 또 한번 'FA 시장의 큰 손'으로 나설까. 이대성과의 재계약 여부가 키포인트다. 이대성을 놓아줄 경우 KCC의 움직임은 FA 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KBL

남자프로농구 전주 KCC는 국내 구단 중 선수단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극적인 팀으로 손꼽힌다. 이는 자유계약선수(FA) 영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팀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영입에 나선다. 단순한 연봉 이외에 훈련·생활환경 면에서도 선수에게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과거 FA 대어 영입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2017년에는 최대어 중 한명으로 손꼽힌 이정현(33·187cm)을 데려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KBL은 FA 원 소속 구단 우선협상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각 구단은 탐나는 FA 영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타 구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선수단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극적인 KCC로서는 반가울 따름이다.

KCC는 2019~2020 시즌 중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대형트레이드를 통해 공들여 영입한 이대성(30·190cm)이 FA 자격을 얻었다. 현재 분위기에서 KCC는 반전의 계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대성과 인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KCC는 이대성과의 재계약에 고려한 금액을 다른 FA에게 투자할 수 있다. 이정현·송교창 이외에는 고액 연봉 선수가 많지 않아 샐러리캡에도 여유가 있다. 또한 전창진 감독(57)과 지난해 계약(3년)을 체결해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 다른 구단에 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우승에 대한 의지가 강한 KCC는 이정현과 송교창(24·200cm)이 포진해 있는 슈팅가드, 스몰포워드 포지션은 백업 멤버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반면, 빅맨과 포인트가드 포지션은 우승후보로 손꼽히기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2019~2020 시즌에는 전 감독에게 믿음을 주는 빅맨이 없어 스몰포워드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송교창을 시즌 내내 파워포워드로 활용했을 정도다. 또 이대성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이정현을 도울 볼 핸들러 보강이 필요하다. 유현준(23·182cm)에게 풀타임 포인트가드를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도 올 시즌에 잘 드러났다.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손꼽히는 KCC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타 구단에게는 부담이다. 영입 고려 대상이 KCC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KCC는 타구단 FA 영입에 이렇다할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은 상태다. 일단 이대성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또 다른 FA 최승욱(26·190cm), 신명호(37·184cm)와의 재계약도 검토 중에 있다. KCC의 움직임은 이번 FA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2019~2020 V리그 대기록들

〈한국전력〉

김인혁 1G 서브A 10개 국내선수 중 최다 기록

양효진 남녀부 최초 1200 블로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된 도드람 2019~2020 V리그에서는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기록들이 여럿 탄생했다.

코트를 밟을 때마다 기록이 되는 남자부 현대캐피탈 여오현은 이번 시즌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32경기에 출장한 여오현은 개인 통산 정규리그 519경기 출장으로 남녀부 최초로 정규리그 500경기 출장 기록을 썼다.

한국전력 김인혁은 지난해 11월 8일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서브에이스 10개를 기록하며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서브에이스 기록을 갈아치웠다. OK저축은행 송명근과 조재성은 한 경기 같은 팀에서 국내 선수가 동시에 트리플크라운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들이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전력전에서 동반 트리플크라운에 성공했다.

여자부는 현대건설 양효진이 남녀부 최초로 개인 통산 1200 블로킹을 돌파해 통산 1202개를 마크했다. 득점 역시 5562점으로 늘리며 여자부 개인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도로공사 이효희는 1만5401개의 세트를 기록, 남녀부 최다 세트 성공 기록을 이어갔다.

남자부 삼성화재 박철우는 역대 2번째로 서브 300개를, 현대캐피탈 전광인, OK저축은행 송명근, KB손해보험 김학민은 나란히 서브 200개를 달성했다. 현대캐피탈 신영석도 역대 4번째 800 블로킹으로 기준기록상을 수상했다.

여자부 IBK기업은행 김희진은 역대 2번째로 서브 300개를, 한국도로공사 문정원이 역대 8번째 서브 200개 고지를 점령했다. KGC인삼공사 염혜선은 역대 3번째로 1만 세트를, 한송이는 역대 5번째 600 블로킹을 기록했다.

다음 시즌에도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자부 대한항공 한선수는 1만5000세트까지 1008개 세트를 남겨뒀다. 지난 세 시즌 평균 1200여개의 세트를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기록 달성이 유력하다. 박철우는 6000득점에 319점차로 다가섰고 양효진도 438점을 채우면 6000득점을 점령한다. 남녀부 통틀어 가장 많은 수비를 기록하고 있는 흥국생명 리베로 김해란은 수비 1만5000개(현재 1만4428개)라는 대기록을 바라본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타임캡슐 '손 편지' 공모전

공모주제 자유…5월8일까지 접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창립 100주년(7월 13일)을 맞아 미래 100년 후대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손 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자유이며 접수기간은 5월 8일까지이다.

공모 부문은 일반(청소년, 성인) 및 체육(청소년, 성인)으로 나뉘며, 체육 부문은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접수는 이메일(100@sports.or.kr)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주제 부합성, 흥미성, 완성도,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 각 1명, 장려상 각 2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삼성 갤럭시 탭S6,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플러스 등 상품과 함께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한다.

공모전 수상작 중 최우수상 총 6편은 2차 저작물로 제작되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매설 예정인 타임캡슐에 함께 봉인된다. 타임캡슐 기록집 및 영상 제작, 창립 100주년 기념식 전시 등에도 활용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임캡슐 손 편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soc100.or.kr/time_capsul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타임캡슐 매설식 ▲100주년 기념식 ▲국제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 체육 100년사 발간 ▲다큐멘터리 및 스팟 영상 제작 ▲홍보관(사진전) 운영 ▲기념우표 발행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등 각종 기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디 오픈, 골프 4대 메이저대회 중 유일하게 취소

코로나19 사태로 대회 일정 변경 US오픈 9월·마스터즈 11월 개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러피안 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국골프협회(USGA), 영국왕실골프협회(The R&A), 미국 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 마스터즈 토너먼트 등 전 세계 주요 골프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회가 연기되면서 일정이 엉킨 주요 대회의 새로운 일정을 협의해 7일(한국시간) 공동으로 발표했다.

새로 조정된 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 메이저대회의 향방이다. 디 오픈은 7월 14~20일 영국 켄트 주 로얄 세인트조지 GC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일하게 취소됐다. 이 기간에는 다른 PGA 대회가 열린다. US 오픈은 9월 15~21일로 변경돼 뉴욕주 마마로넥 윙드풋 GC에서 열린다. 6월 16~22일에는 PGA 투어 경기가 대신 열린다. PGA 챔피언십은 8월 4~1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TPC 하딩파크에서 일정을 변경해 열린다. 마스터즈는 조지아 주 오거스타 내셔널 GC에서 11월 10~16일 펼쳐진다.

이와 함께 PGA 투어의 시즌 마지막 대회와 페덱스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8~9월에 열린다. ▲윈덤 챔피언십(8월 11~17일·노스캐롤나이나주 그린스보로 세지필드 GC) ▲노던 트러스트(8월 18~24일·매사추세스주 노턴 TPC 보스턴) ▲BMW 챔피언십(8월 25~31일·일리노이즈주 올림피아필드 올림피아필드 CC) ▲투어 챔피언십(9월 1~8일·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GC) 순이다.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은 당초 예정대로 9월 23~28일 위스콘신 주 콜러 위스틀링 스트레이츠에서 열린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코로나19 이기는 슬기로운 집콕운동 2 플랭크 중급편

●원 레그 레이즈 플랭크·원 암 레이즈 플랭크의 효과
플랭크가 주는 전반적인 자세교정, 균형 감각 향상 효과와 함께 특히 복부, 허리 등 근육을 단련시켜 복근 만들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❶ 초급 플랭크가 쉬워진 분들을 위해 중급 플랭크 중 하나인 원 레그 레이즈 플랭크, 말 그대로 한쪽 다리를 올리는 플랭크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❷ 배꼽을 닫는다는 생각으로 엉덩이와 배 쪽에 힘을 주고 다리를 한쪽씩 위로 올립니다. 양다리를 각각 5번씩 합니다.

❸ 이 때 불안정한 사람은 다리를 넓게 해도 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리를 모아도 됩니다.

❹ 또 다른 중급 플랭크인 원 암 레이즈 플랭크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기본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❺ 배꼽 주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한쪽 씩 위로 올립니다. 양팔 각각 5번씩 합니다.

❻ 이때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안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때에도 불안정한 사람은 다리를 넓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리를 모읍니다.

스포츠7330
〈공동기획〉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스포츠동아